



2021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즐겁게 걷고, 함께 쓰는 보행도시

2021. 12. 10.(금) 16:00-18:00



주최·주관

(auri) 건축공간연구원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행정안전부

[개회식]

개 회 사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축 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기조발제] **걷기좋은 도시 30년 :**
그 많은 운동, 연구, 정책, 사업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나?
박소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발 제1]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센터장

[발 제2]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좌 장 **정 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토 론 자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상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연구센터장
 김정훈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사회 **김영지** 건축공간연구원 도시설계연구단 연구원



[발 제 1]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1

김은희 |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센터장

[발 제 2]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 11

오성훈 |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제 1]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김은희 | 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센터장



2021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즐겁게 걷고, 함께 쓰는
보행도시

보행환경과 시민의 삶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2021. 12.10

김은희 (도시연대정책연구센터장)

1

보행운동의 시작 (1992년)

“내가 원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횡단보도 옆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마을만들기 운동의 시작 (1993년)

주민과 밀착하여 통학로 보행안전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법도 공무원도 전문가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로교통법은 철저하게 자동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공무원은 '규정이 없다' '예산이 없다' '자동차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를 댔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기에

절박하게 호소하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처럼 주민참여에 대해 몸으로 체득하면서 방법과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즈음
 일본의 마찌즈구리(まちづくり)를 접하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말로 직역하여 '마을만들기'라 했는데 현재까지 마을만들기로 불리고 있는 이유다.

3

보행권, 저항의 역사



그리고 변화



그런데...

구의2동 자양로50길을 안전한 통학로로 만들기 위한 서명부

"자양로50길을 오르막 방향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도로 양 끝에 보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오후 5시 40분, 자양로50길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 2명이 사망했고, 7명이 다쳤습니다. 자양로50길은 주민의 주요 생활공간이자 통행로이고, 2016년에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무분별한 주행과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 안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최근의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자양로50길은 동의초등학교를 포함한 인근 중·고등학교들의 통학로이자 야간집과 유치원, 학원이 밀집된 곳이므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매우 우려됩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배움터와 집을 오갈 수 있도록 도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자양로50길을 안전한 차량의 주행을 위한 오르막방향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도로 양 끝에 아이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합니다.



■ 답변일 : 2018. 08. 24. (금)

■ 구청 담당자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박종민 주무관 (02. 455. 7922)

■ 아직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중간 진행상황 공유

- 현재 그 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함.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지 않아서 다시 하는 공사에 대한 구청의 부담이 있음. 그래서 새로운 조성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려고 한다.

- <도로교통공단>이라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일방통행가능성, 우회도로 확보여부, 보도설치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고 9월중에 답변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 9월중에 도로교통공단의 검토내용이 나오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야하지만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 양측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도 길도 좁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어렵데요.
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께 묻습니다.
왜 여전히 위험할까요?

생활도로, 거주자우선주차 지속해야 하는가



1996년경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국으로 확대
생활도로에서 주차문제에 대한 접근없이 보행안전은 가능한가.
엷히고 얹힌 문제와 이해관계들,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생활도로, 주택공급과 만나면...



4.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 ◆ 전용면적 30㎡ 미만 시 세대당 0.5대 이상 되도록 주차장 설치(서울시)

- ◆ 전용면적 30~60㎡ 0.8대, 60㎡ 초과 1대(서울시 기준)

단, 지역별 차량 보유율 증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1/2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완화 가능. 일반 지역의 경우 세대당 0.1~0.5대이고, 서울시가 지정하는 주차장 완화 구역은 연면적 200㎡당 1대만 설치하면 된다. 또 일반 지역에서도 원룸형과 기숙사형으로 나뉜다. 원룸형은 세대당 0.2~0.5대, 기숙사형은 세대당 0.1~0.3대만 설치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주차장 수를 정할 수 있다.

2)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60㎡이하 : 0.7대, 65㎡이하 : 75㎡당 한대, 85㎡초과 : 65㎡당 한대

5. 오피스텔과 비교시 세대 당 주차대수가 적어서 불편할 수는 있으나, 전용률이 높다는 장점!

도시재생사업, 주택공급정책..

보행정책은 어떻게 결합하고 있을까?

생활도로, 시설은 적당한가



생활도로 시설물에 대한 평가는 있는가
시설물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
보행안전과 보행불편
시설이 기능을 하기 위한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활도로, 통행 우선순위는 있는가



자동차 중심의 통행 시스템. 통행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생활도로, 특별한가



“구릉지에 경사가 심하고, 좁은 골목에 평균 3-4개 골목이 만나는 교차로...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느 전문가의 토론내용)

생활도로 보행정책에 대한 제안

자동차와 보행 분리 → 자동차를 보행자에게 순응

간선도로 중심 → 생활도로 중심으로 도로위계 재구성

주차문제 회피 →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전면 재검토

시설물 넣기 → 보행안전을 가로막는 요소 빼기

주민참여 회피 →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인식변화 도모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주차장만들기 → 차한대 빼기

보행자 보호 속도 → 우리마을 적정속도

횡단보도 교통사고 제로운동

보행권을 침해하는 법제도 개정 운동

[차도/보도] 도로체계 → [차도/자전거도로/보도] 도로체계로

고맙습니다.



[발 제 2]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

오성훈 |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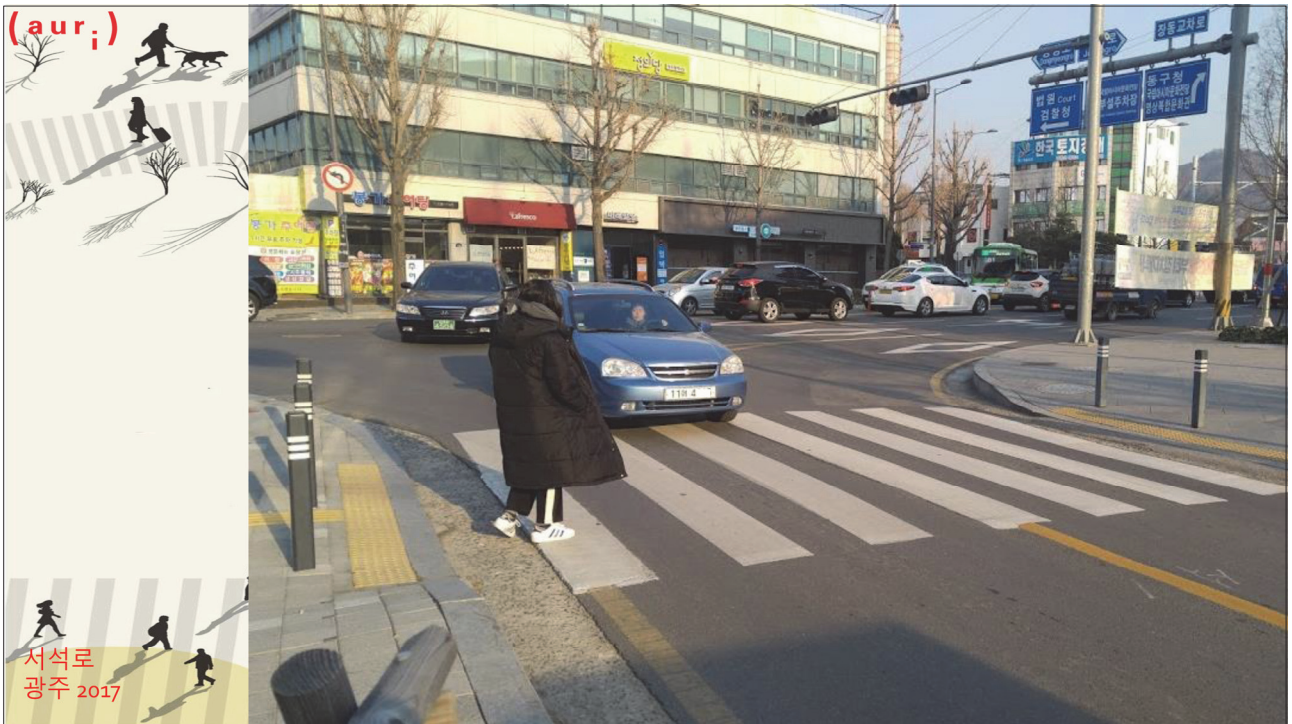
즐겁게 걷고, 함께 쓰는
보행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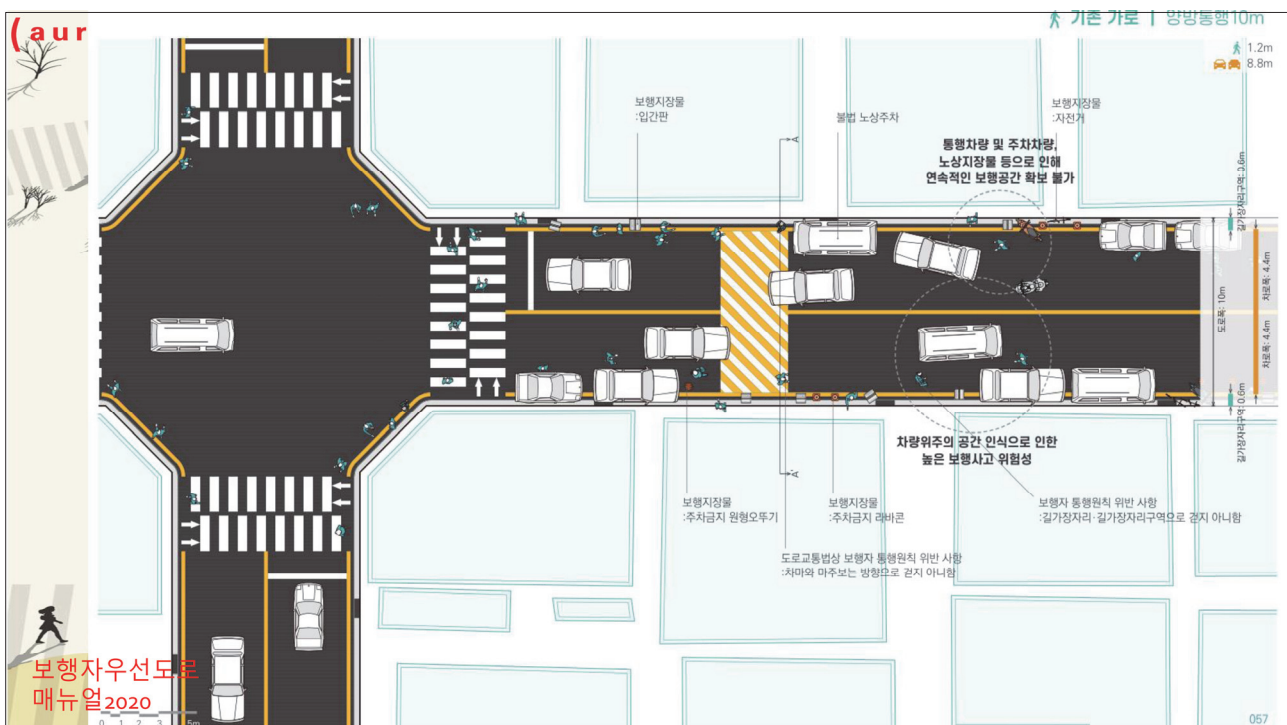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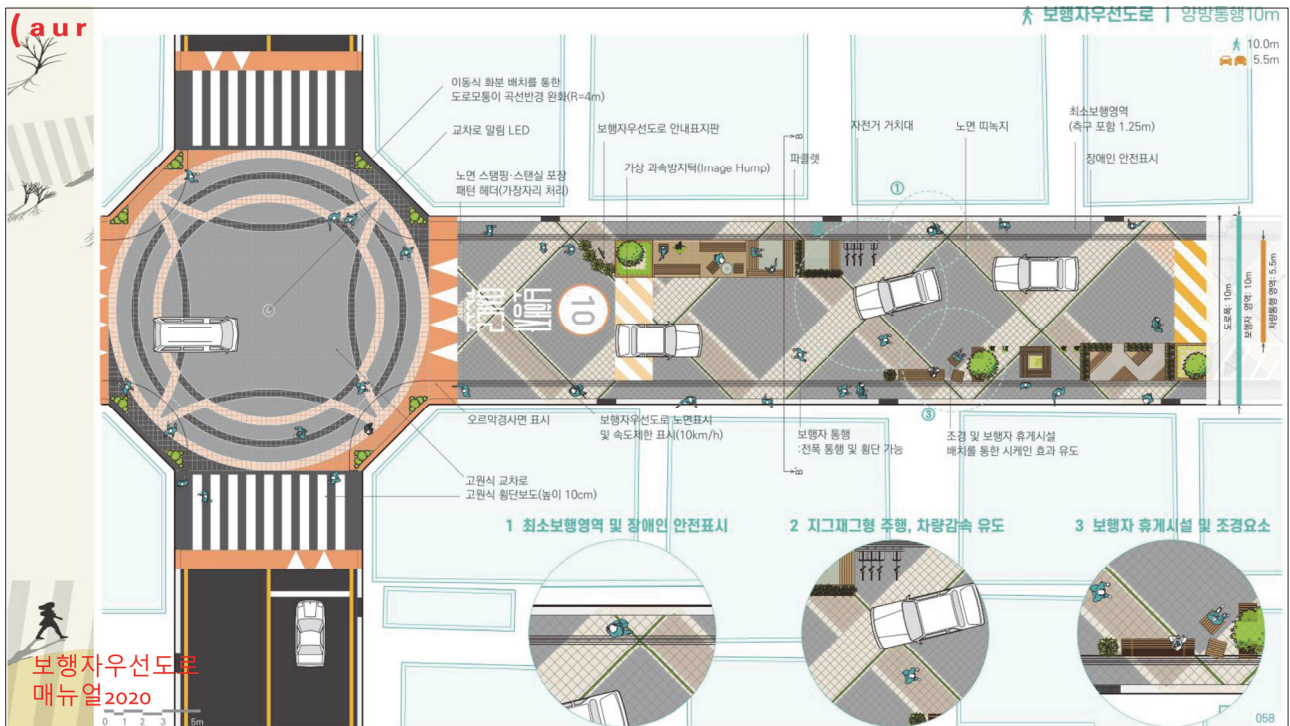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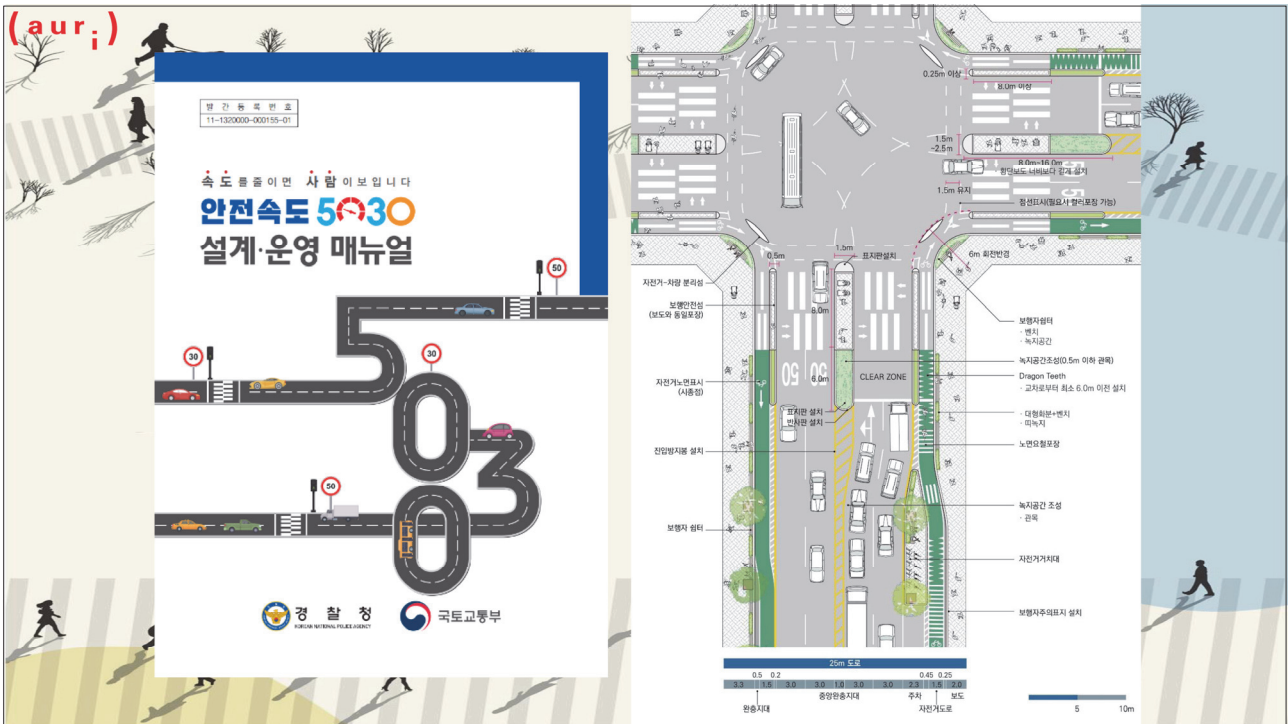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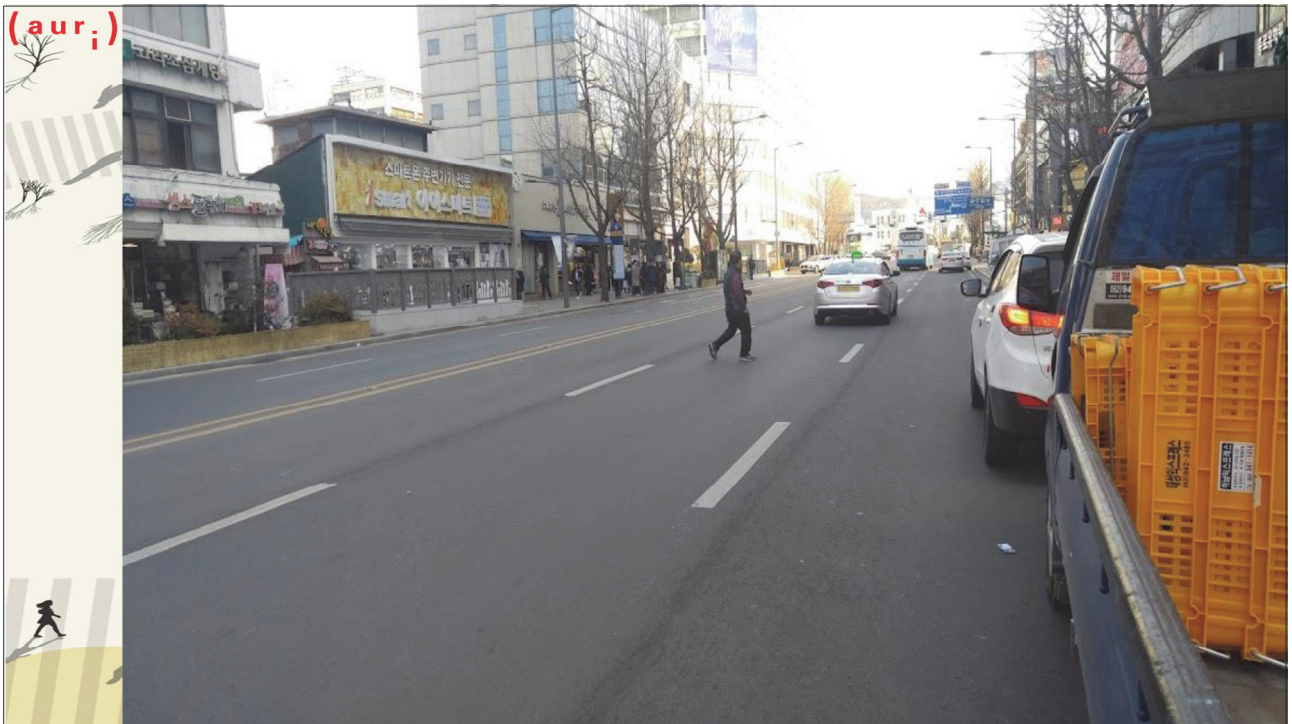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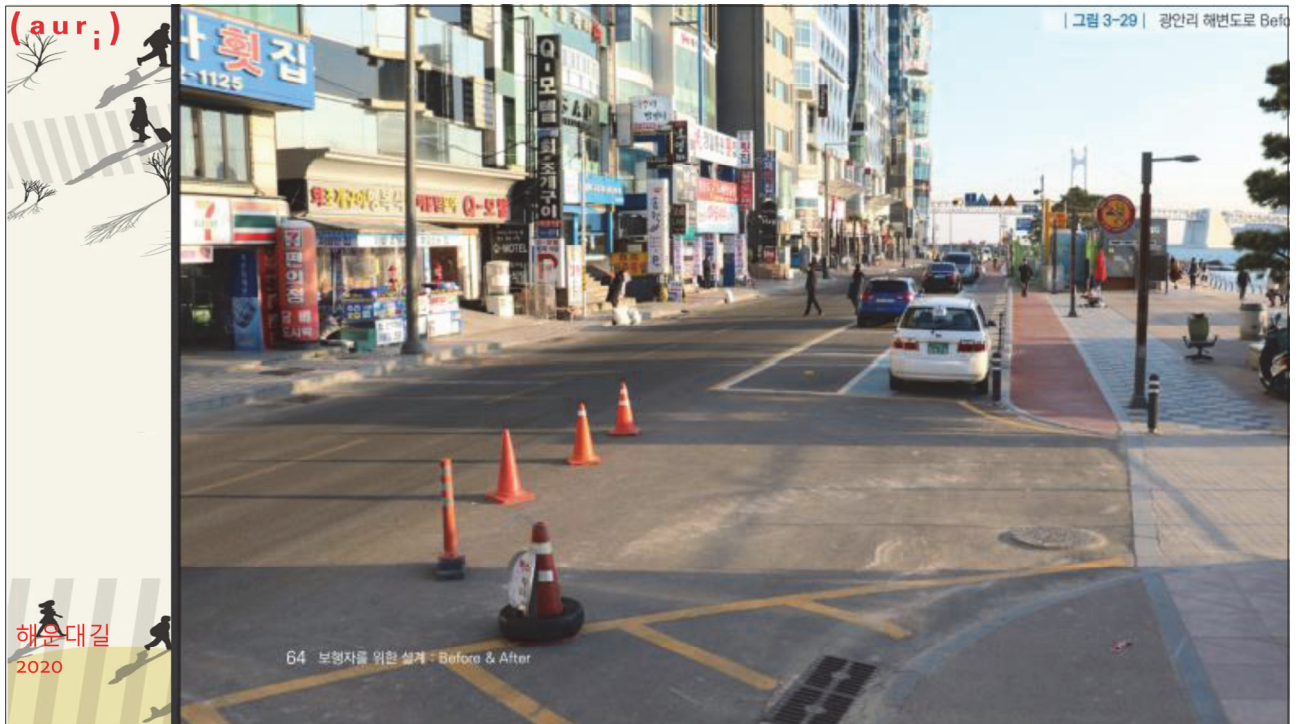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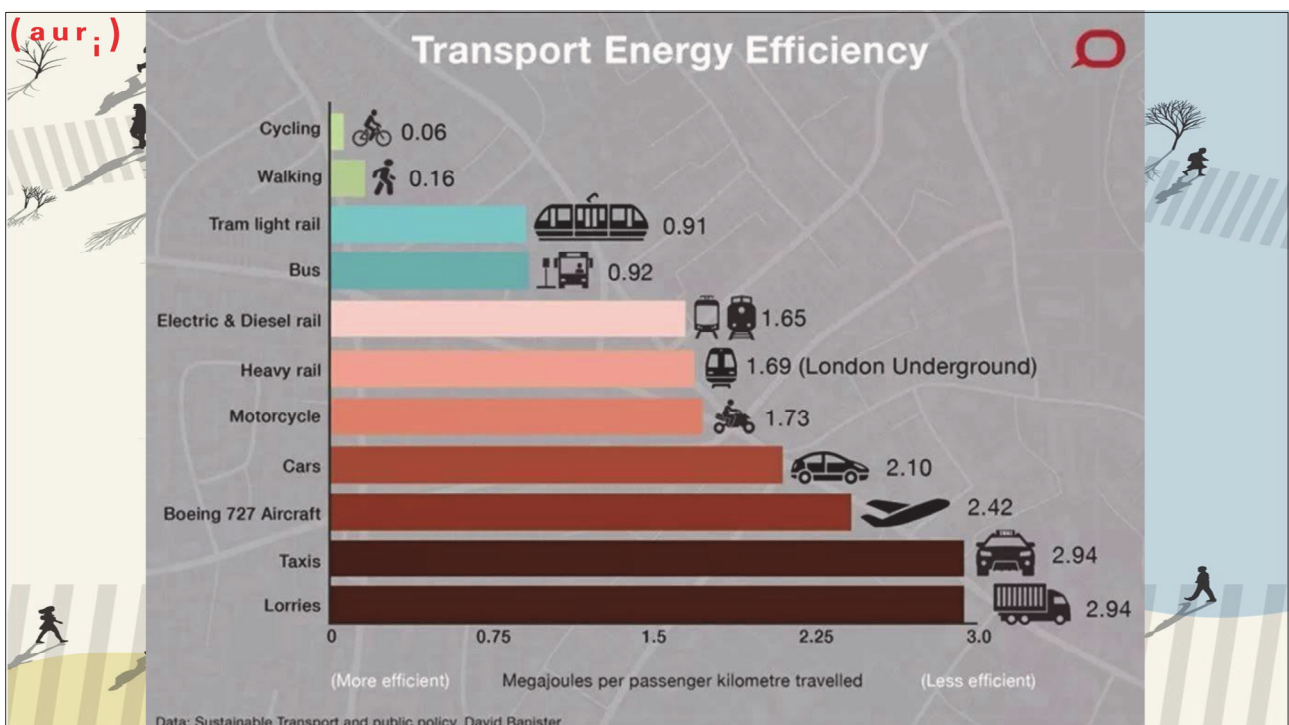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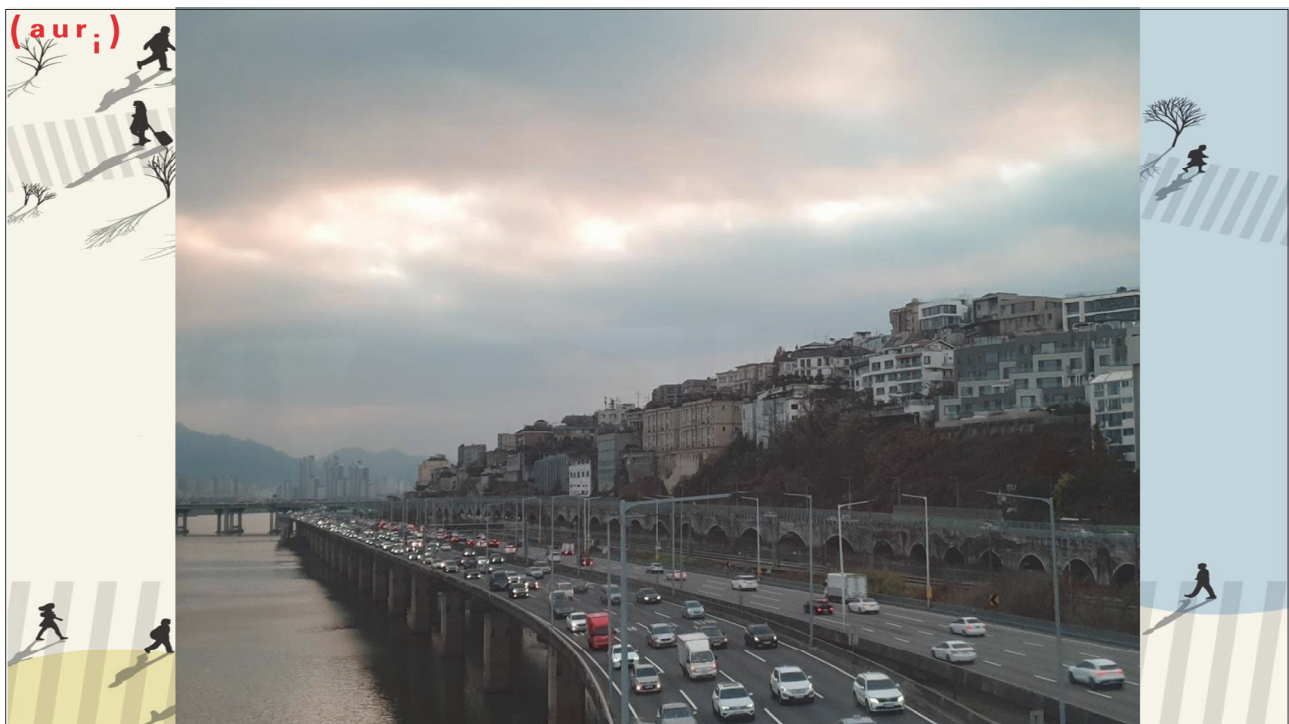














DUBLIN
CHAMBER

DUBLIN: THE 15 MINUTE CITY

PUBLISHED SEPTEMBER 2020

"By adopting the 15 Minute City principle we can significantly enhance the liveability of Dublin."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